

# ICF Core Set의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 Systematic review of ICF Core Set: from 2012 to 2018

최진혁\*, 박재국\*, 박성호\*, 문소영\*, 김민영\*, 신별해\*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 〈 요약 〉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ICF Core Set 관련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헌 선정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55편의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CF Core Set 연구는 2012년 이후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분야는 의분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 대상은 지적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구성요소에서 활동과 참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다루어졌다. 연구 주제는 ICF Core Set을 활용하여 적용 및 진단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 ICF Core Set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ICF, Core Set, 연구 동향

## I. 서론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01년에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를 공표하였다. ICF는 기능과 장애(functioning and disability), 배경요인(contextual factors)의 2개 영역과 4개의 하위 요소 크게 분류되어 있으며, 하부 항목으로는 기능과 장애 영역은 신체 기능과 신체 구조(body function and structure), 활동과 참여(activities and particip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경요인은 환경요인(environmental factors)과 개인요인(personal factors)으로 구성되어 있다. ICF는 인간의 기능과 장애를 평가하고 체계적인 평가정보 코드로 요약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어 ICF를 이용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장애 관련 연구와 교육적·중재적 적용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ICF 관련 국내외 연구가 ICF의 활용적 장점과 더불어 실제 적용에 대한 논의 속에 ICF의 방대한 1,424개의 하위항목으로 인해 비실용적인 면이 보고되었다(Yen et al, 2013). 이에 따라 ICF의 실용성과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ICF의 기능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 장애(집단)를 다루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파악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우선순위 항목을 선정하여 단축시킨 평가도구 ICF Core Set 개발 연구가 시작되었다(Stucki & Grimby, 2004; Cieza, et al.,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ICF Core Set 관련 연구논문 분석을 통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ICF Core Set 개발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검색 절차 및 문헌 분석 대상

ICF Core Set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2주간 문헌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 절차는 학술지 게재 논문이면서 국내 논문의 경우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RISS', 누리미디어의 'DBPIA', '한국학술정보(주)의 'KISS'를 활용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국외 전자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PubMed', 'Wiley', 'SAGE'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국내논문 검색 시 주제어는 'ICF Core Set', '국제기능·건강·장애분류 코어', '국제기능·건강·장애분류 코어셋'을, 국외연구 검색 시에는 'ICF Core Set'를 이용하였다. ICF Core Set 매뉴얼이 공표된 2012년부터 논문 선정이 이루어진 2018년 2월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외 논문들을 선정 및 분석하였다.

### 2. 문헌 분석 기준 및 자료 처리

문헌 분석은 연도 및 지역, 연구 분야, 연구대상 유형, ICF 구성요소, 연구 주제 총 5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분석 기준에 따라 연구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분석기준의 틀에 중복빈도 처리하였다. 엑셀 파일 정리된 자료는 IBM SPSS.23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를 실행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게재 연도 및 연구 지역별 ICF Core Set 연구동향

게재 연도별 논문의 수는 2014년도가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 게재된 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지역별로는 국외의 경우 총 38편(69.1%)이었으며 연구 지역별로, 북미 5편(9.1%), 유럽 25편(45.5%), 아시아 5편(9.1%), 기타 3편(호주, 브라질)으로 나타나 ICF Core Set 관련연구 수는 유럽 지역이 가장 많았다. 국내의 경우 17편(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 분야별 ICF Core Set 연구동향

연구 분야별로는 의료(재활)분야 연구가 52편(94.5%)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 5편(9.1%), 교육 3편(5.5%), 특수교육 3편(5.5%), 심리학 2편(3.6%) 순의 분포를 보였다.

### 3. 연구 대상 유형별 ICF Core Set 연구동향

연구 대상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을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의 수가 21편(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뇌손상 관련 연구의 수가 17편(27.9%)으로 신체 관련 연구 수 4편(6.6%) 보다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ICF 구성요소에 ICF Core Set 연구동향

ICF의 기능과 장애 항목 중 활동과 참여에 대해서 다룬 논문 수가 전체 51편(9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과 참여 구성요소는 지역별로 북미 5편(9.4%), 유럽 24편(45.3%), 아시아 4편(7.5%), 한국 15편(28.3%)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 걸쳐 가장 많았다.

### 5. 연구 주제에 따른 ICF Core Set 연구동향

ICF Core Set 적용 및 진단평가와 관련된 연구의 수가 41편(64.1%)으로 가장 많았으며, ICF Core

Set 개발 내용을 토대로 중재를 개발하고 치료를 개발하는 연구가 전체 2편(3.1%)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연구 주제 빈도를 비교하면 ICF Core Set 적용 및 진단, ICF Core Set 개념적 고찰, ICF Core Set 개발, 중재·치료 개발의 순으로 연구 주제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2014년도의 경우 다수의 논문이 뇌졸중(Stroke) 관련, 2012년도의 경우 척추손상(Spinal Cord Injury) 관련 ICF Core Set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ICF Core Set 연구 개발이 특정질환 중심으로 관련지어 연구되는 경향을 추측하여 볼 때 특정 질환에 대한 이 분야 관련자들의 연구가 집중되는 경우 향후에도 집중적인 시기에 연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유럽과 비교하여 아직까지 ICF Core Set 개발이 되지 않은 많은 질병들이 있으므로 국내 실정에 따른 ICF Core Set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분야 외에는 게재된 연구 수가 거의 없어 ICF Core Set 개발연구가 의료분야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이외의 분야에는 제한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방대하며 복잡한 ICF를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기 위해 용이하게 만드는 ICF Core Set의 장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ICF Core Set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향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 특수교육,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ICF Core Set 연구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장애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지체 장애가 대부분이었다. 유럽의 경우 장애유형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국내에서 ICF Core Set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장애유형에 대한 ICF Core Set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ICF Core Set 관련 논문의 구성 요소 중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기능과 장애 영역의 활동과 참여 구성 요소 부분에 대한 연구의 수가 가장 많았다.

다섯째, ICF Core Set 연구 주제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ICF Core Set 적용 및 진단 연구 주제의 수가 ICF Core Set 개발 연구 주제 수에 비해 약 2.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F Core Set이 ICF 분류 체계를 임상에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으로 ICF Core Set 연구는 2012년도 매뉴얼이 발표된 이후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앞으로 직업재활, 성인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대상별 ICF Core Set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용하기 위한 각 중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심과 교육 및 연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04).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국제장애분류 개정판. 서울: 보건복지부.
- Cieza, A., Schwarzkopf, S., Sigl, T., Stucki, G., Melvin, J., Stoll, T., ... & Walsh, N. (2004). ICF Core Sets for osteoporosis.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36(0), 81-86.
- Stucki, G., & Grimby, G. (2004). Applying the ICF in medicine.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44 Suppl), 5.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Geneva: WHO Publishing.
- Yen, T. H., Liou, T. H., Chang, K. H., Wu, N. N., Chou, L. C., & Chen, H. C. (2014). Systematic review of ICF core set from 2001 to 2012.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6(3), 177-184